

[7급 공채 예시문제]

정답 : ⑤

문 1. 다음 (가)에 제시된 <작성 원칙>에 따라 (나)의 <A시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7급 공채 예시문제 1번]

- (가) <작성 원칙>
- 보도자료의 제목 및 부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첫 단락인 ‘리드’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의 핵심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 제목과 부제에서 드러내고 있는 핵심 정보를 본문에서 빠짐없이 제시해야 한다.
  - 불필요한 잉여 정보를 포함하거나 동일 정보를 필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정보 전개에 필요한 표, 그래프, 그림 등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나) <A시 보도자료>

㉠ 봄철 불청객 ‘황사’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 대응 체계 강화와 시민 행동 요령 안내 등 철저한 대비로 황사 피해 최소화 -  
㉡ A시는 매년 봄철(3 ~ 5월)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A시는 황사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시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매년 봄철이면 반갑지 않은 손님인 황사가 찾아온다. 황사는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황사 관측일수는 6.1일이며, 이 중 5.1일(83%)이 봄철(3 ~ 5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의 기상 전망에 따르면 A시의 황사 발생 일수는 4월에는 평년(1.9일)과 비슷하겠으나, 5월에는 평년(2.5일)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 최근 중국 북부지역의 가뭄으로 평년보다 더 강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A시에서는 황사 발생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기후 상황 전파, 도로변과 대규모 공사장물 뿌리기, 진공청소차를 활용한 청소 등 체계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 ① ㉠을 ‘불청객 황사,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입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은 아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에 최근 30년간 한국의 황사 발생 관측일수를 도표로 제공한다.
- ④ ㉣에 이어 중국 북부지역 가뭄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추가한다.
- ⑤ ㉤에 시민들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과 그 안내 계획을 추가한다.

- 1. 문제 유형
-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문 2.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급 공채 예시문제 2번]

정답 : ②

갑: 2019년 7월 17일 학술연구자정보망에서 학술연구자 A의 기본 정보는 조회할 수 있는데, A의 연구 업적 정보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을: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자정보망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민원인은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요. 또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는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갑: 학술연구자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조회 화면에 무슨 문구가 표시되나요?

을: 조회 화면에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해당 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 화면에 “업적 정보 집적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요. 해당 민원인께서는 무슨 문구가 표시되었다고 말씀하시나요?

갑: 문구 표시에 대한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아마 문구를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 제공 동의율과 업적 정보 집적률은 현재 얼마만큼 되나요?

을: 2019년 7월 18일 오늘 기준으로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 제공 동의율은 약 92 %입니다. 동의자 대상 업적 정보 집적률은 약 88 %고요. 동의한 학술연구자가 10여만 명에 이르러 자료를 집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2019년 8월 말까지는 정보 집적이 끝날 겁니다.

갑: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민원인에게 라고 답변 드리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①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2019년 8월 말이 되면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가 조회될 것이다
- ②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③ 현재 학술연구자 A는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한 상태지만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④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만일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 한 달 안에는 그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⑤ 오늘 다시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한다면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것이다

- 1. 문제 유형
-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문 3. 다음 글의 ㉠ ~ ㉤에서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한 곳을 찾아 수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7급 공채 예시문제 4번]

정답 : ㉢

1. 문제 유형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은 거짓말을 하려는 그 사람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일까요? ㉠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믿는 대로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거짓인 경우, 이를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들곤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다 보니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참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내가 참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과 달라 거짓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기보다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런 거짓말을 ‘결과적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말하는 것을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결과적 거짓말로 정의할 것인가, 의도적 거짓말로 정의할 것인가는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에 더 잘 맞는 것은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짓인 말’과 ‘거짓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연히 참이 된 말’과 ‘참말’도 구별되어야겠지요. 가령, 모든 것을 자신이 믿는 바와는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사람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라고 믿는다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로 보면 참말을 한 셈이지만,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자신의 믿음대로 말한 사람과는 다른 의미에서 참말을 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 그는 우연히 진실을 말했다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자신이 믿는 바대로 말하려고 했고 그 결과 진실을 말한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을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을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되겠지요’로 수정한다.
- ③ ㉢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로 수정한다.
- ④ ㉤을 ‘이 두 가지 거짓말이 모두 참말과 구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로 수정한다.
- ⑤ ㉤을 ‘그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로 수정한다.

[5급 유사기출]

문 4. 다음 글의 문맥에 맞지 않는 곳을 ㉠ ~ ㉥에서 찾아 수정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9년 5급 공채 가책형 31번]

‘단일환자방식’은 숫자가 아닌 문자를 암호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는 문장에 사용된 문자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대일 대응으로 재배열하여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이 방법에 따라 영어 문장 ‘I LOVE YOU’를 암호화하여 암호문으로 만든다고 해보자. 철수는 먼저 알파벳을 일대일 대응으로 재배열하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I LOVE YOU’를 ‘Q RPDA LPX’와 같이 암호화하게 될 것이다. 이때 철수가 사용한 규칙에는 ㉠ ‘I를 Q로 변경한다’, ‘L을 R로 변경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가 단일환자방식에 따라 암호화한 영어 문장을 접한다고 해보자. 그 암호문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 ㉡ 우리가 그 암호문에 단일환자방식의 암호화 규칙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파악하여 일대일 대응의 암호화 규칙을 추론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 영어에서 사용되는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니 E가 12.51 %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 빈도는 T, A, O, I, N, S, R, H의 순서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자. ㉢ 물론 이러한 통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도 암호문이 한두 개 밖에 없다면 암호화 규칙을 추론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암호문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 누군가가 어떤 영자 신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을 단일환자방식의 암호화 규칙 α에 따라 암호문들로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 신문 전체에 사용된 알파벳 수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암호문들에 나타난 알파벳 빈도의 순서에 근거하여 규칙 α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다. ㉣ 만일 규칙 α가 앞서 예로 든 철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암호문들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은 E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암호문들에는 영어 알파벳 26자가 모두 사용되었는데 그중 W가 25,021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후의 빈도는 P, F, C, H, Q, T, N의 순서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는 철수가 정한 규칙은 규칙 α가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규칙 α에 대해 추론하면서 암호문들을 해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암호문 ‘H FPW HP’는 ‘I ATE IT’를 암호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① ㉠을 “Q를 I로 변경한다”, ‘R을 L로 변경한다’로 수정한다.
- ② ㉡을 ‘우리가 그 암호문에 단일환자방식의 암호화 규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로 수정한다.
- ③ ㉢을 ‘이러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암호화 규칙을 추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로 수정한다.
- ④ ㉣을 ‘만일 규칙 α가 앞서 철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암호문들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은 A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로 수정한다.
- ⑤ ㉤을 ‘암호문 ‘I ATE IT’는 ‘H FPW HP’를 암호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로 수정한다.

-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④

- ① (×) :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단이 근거이다. 원문인 ‘I LOVE YOU’와 암호문 ‘Q RPDA LPX’을 살펴보면 원문과 암호문의 가장 첫 번째 철자부터 마지막 철자까지 순서대로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문맥에 맞으므로, 선택지 ①은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 :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단일환자방식에 따라 암호화한 영어 문장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파악하여 일대일 대응의 암호화 규칙을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문맥에 맞으므로, 선택지 ②는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 : 두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암호문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암호문의 개수가 적을수록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은 문맥에 맞으므로, 선택지 ③은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 :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단 끝에서 세 번째 문장,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가 근거이다. 철수가 규칙에 따라 암호화한 문장을 통해 철수는 E를 A로 변환했음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를 통해 영어에서 사용되는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니 E가 12.51%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자. 따라서 철수가 작성한 암호문들에는 A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규칙 a가 적용된 암호문들에는 영어 알파벳 26자가 모두 사용되었는데 그중 W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후의 빈도는 P, F, C, H, Q, T, N의 순서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는 철수가 정한 규칙은 규칙 a가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은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선택지 ④는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다.
- ⑤ (×) : 두 번째 문단 끝에서 세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단 네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통계 자료를 통해 영어에서 사용되는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니 E가 12.51 %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 빈도는 T, A, O, I, N, S, R, H의 순서라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암호문들에는 영어 알파벳 26자가 모두 사용되었는데 그중 W가 25,021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후의 빈도는 P, F, C, H, Q, T, N의 순서라는 것이 밝혀졌다. 많이 사용된 빈도의 순서대로 각각의 알파벳을 일대일로 대응한다면 ‘H FPW HP’는 ‘I ATE IT’과 일대일로 대응하게 되며, ‘I ATE IT’이 원문이고 ‘H FPW HP’는 암호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문맥에 맞으므로, 선택지 ⑤는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실전 Skill]

- ④ :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장부터 끝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 논리적 기호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규칙 a가 앞서 예로 든 철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 → 암호문들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은 E일 가능성이 높음
  - W가 가장 많이 사용됨
  - －규칙 a는 철수가 정한 규칙
- 3)은 전제 1)과 전제 2)를 사용하여 후건부정으로 이끌어낸 결론임을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문단 끝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 통계 자료를 통해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파벳은 E라고 언급하고 있고, 철수는 원문의 E를 암호문의 A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1)의 후건을 수정하여야 1) ~ 3)이 타당한 연역논증이 됨을 알 수 있다.

문 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년 5급 공채 4책형 37번]

뉴턴은 무거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은 동일한 원인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태양과 행성 사이에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뉴턴은 질량  $m_1$ 인 물체와 질량  $m_2$ 인 물체의 중심이  $r$ 만큼 떨어져 있을 때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F$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고 보았다.

$$F = G \frac{m_1 m_2}{r^2} \quad (\text{단, } G \text{는 만유인력 상수임})$$

뉴턴은 이렇게 표현되는 중력으로 행성들과 달의 운동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이 힘은 질량을 갖는 것이라면 우주의 모든 것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편’ 중력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렇지만 뉴턴은 왜 이런 힘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설명은 20세기에 들어와 아인슈타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중력은 물질 근처에서 휘어지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와 관계가 있는데, 이처럼 휘어지는 방식은 마치 팽팽한 고무막에 볼링공을 가만히 올려놓으면 고무막이 휘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 상태에서 볼링공 근처에서 구슬을 굴렸을 때 구슬의 경로가 볼링공 쪽으로 휘어지거나 구슬이 볼링공 주위를 도는 것은 태양의 중력을 받아 혜성이나 행성이 운동하는 방식에 비길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라는 힘을 물체의 질량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더 나아가서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중력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자신의 중력 개념으로부터 추론했다. 그는 태양의 큰 질량 때문에 태양 주위에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해서 태양 주위를 지나가는 광자의 경로가 태양 쪽으로 휘어진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는 사실을 고려하면, 뉴턴의 중력 이론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상반된 예측 중 어느 쪽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나선 에딩턴의 원정대는 1919년에 개기일식의 기회를 이용해서 별빛의 경로가 태양 근처에서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대로 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인슈타인은 뉴턴을 능가하는 물리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 ① 광자는 질량을 갖지 않는다
- ② 진공 속에서 광자의 속력은 일정하다
- ③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더 큰 중력을 발휘한다
- ④ 중력은 지구의 표면과 우주 공간에서 동일하다
- ⑤ 시간과 공간은 물체의 질량이나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①

뉴턴의 중력 개념은 중력은 물체의 질량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질량을 갖는 우주의 모든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 주위를 지나가는 광자의 경로가 태양 쪽으로 휘어진다는 아인슈타인의 예측은 뉴턴의 중력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뉴턴의 중력 개념에 의하면, 태양 주위를 지나가는 광자의 경로는 태양 쪽으로 휘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물체 사이에 거리가 존재함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개념에서 모두 공통된 부분으로, 결국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개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질량’때문임을 알 수 있다. 뉴턴은 중력이 질량을 갖는 모든 것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중력 개념에서는 광자는 질량을 갖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해서 태양 주위를 지나가는 광자의 경로가 태양 쪽으로 휘어진다고 예측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

문 6. 다음 ㉠과 ㉡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18년 5급 공채 나책형 30번]

사람들은 모국어의 ‘음소’가 아닌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가령, 물리적으로 다르지만 유사하게 들리는 음성 [x]와 [y]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우리는 [x]와 [y]가 서로 다르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x]와 [y]가 다르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두 소리가 서로 변별적이라고 하고, [x]와 [y]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두 소리가 서로 비변별적이라고 한다.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소리를 음소라고 하고,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를 이음 또는 변이음이라고 한다. 우리가 [x]와 [y]를 변별적으로 인식한다면, [x]와 [y]는 둘 다 음소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반면 [x]와 [y] 가운데 하나는 음소이고 다른 하나가 음소가 아니라면, [x]와 [y]를 서로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

여기서 변별적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대립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소리가 대립을 한다는 말은 그 소리가 단어의 뜻을 갈라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변별적이라는 것은 대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대립을 하는 소리는 당연히 변별적이고, 대립을 하지 못하는 소리는 비변별적이다.

인간이 발성 기관을 통해 낼 수 있는 소리의 목록은 비록 언어가 다르더라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소리 즉, 음소의 수와 종류는 언어마다 다르다. 언어가 문화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언어 역시 문화적 산물이므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의 수와 종류에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언어라면, 언어가 다르다고 인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음소 목록의 차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의 음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면, ㉡

- ㉠: [x]를 들어도 [y]로 인식한다면 [x]는 음소이다.  
㉡: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
- ㉠: [y]를 들어도 [x]로 인식한다면 [y]는 음소이다.  
㉡: 그 소리를 모국어에 존재하는 음소 중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
- ㉠: [x]를 들어도 [y]로 인식한다면 [x]는 [y]의 변이음이다.  
㉡: 그 소리를 모국어에 존재하는 음소 중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
- ㉠: [x]를 들어도 [y]로 인식한다면 [x]는 [y]의 변이음이다.  
㉡: 그 소리를 듣고 모국어에 존재하는 유사한 음소들의 중간음으로 인식하게 된다.
- ㉠: [y]를 들어도 [x]로 인식한다면 [x]는 [y]의 변이음이다.  
㉡: 그 소리를 듣고 모국어에 존재하는 유사한 음소들의 중간음으로 인식하게 된다.

-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③

- ㉠ : [x]와 [y]를 서로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를 이음 또는 변이음이라 한다. 따라서 ‘[x]를 들어도 [y]로 인식한다면 [x]는 [y]의 이음 또는 변이음’이며, ‘[y]를 들어도 [x]로 인식한다면 [y]는 [x]의 이음 또는 변이음이다.’
- ㉡ : 모국어의 음소가 아닌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소리 즉, 음소의 수와 종류는 언어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언어 역시 문화적 산물이므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의 수와 종류에도 차이가 난다. 언어가 다르다고 인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음소 목록의 차이이다.

모국어의 음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 소리를 모국어와 다른 변별적인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 즉, ‘그 소리를 모국어에 존재하는 음소 중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

[실전 Skill]

- ㉢ : 지문은 어떤 소리를 듣고 모국어에 존재하는 유사한 음소들의 중간음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 ④와 ⑤는 소거하여야 한다.

[7급 공채 예시문제]

문 7.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7급 공채 예시문제 3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무직인 갑은 만 3세인 손녀의 돌봄을 위해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갑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 제95조(회원) ① 본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시 소재 직장 재직자이다.
- ③ 회원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그러자 갑은 ○○시가 제정한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회원) ① 회원은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시 소재 직장 재직자
2.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갑의 민원을 검토한 ○○시는 운영규정과 조례가 불일치를 발견하고 ㉠ 갑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또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 ①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 ②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 ③ 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 ④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 ⑤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정답 : ②

1. 문제 유형

2. 문제 해결의 실마리

[5급 유사기출]

문 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0년 5급 공채 나책형 29번]

두 국가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 두 국가 모두의 거주자로 간주되면, 두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 합계에 대한 세금을 두 국가 모두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부과는 불합리하다. 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사례>의 개인 갑 ~ 정을 X국과 Y국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결정하고자 한다. 갑 ~ 정은 국적은 각 하나씩이며, 네 명 모두 X국과 Y국에서만 소득을 얻는다. <기준>의 각 항목은 거주국이 결정될 때까지 ‘첫째’부터 순서대로 적용하되, 항목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국이 결정되면 그 뒤의 항목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 준>

첫째, 소득을 얻는 국가 중 한 국가에만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둘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에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쪽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셋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중 어느 쪽에도 영구적인 주소가 없거나 어느 쪽 국가에도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즉 1년의 50 %를 초과하여 거주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넷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중 어느 쪽에도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적에 따라 거주국을 결정한다.

<사 례>

○ X국 국적자 갑은 X국 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X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어느 나라에도 영구적인 주소가 없으나 1년에 약 3개월은 X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Y국에 거주한다.

○ Z국 국적자 을은 Y국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Y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을은 Y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그가 유일하게 영구적인 주소를 가진 X국에는 1년에 4개월 정도 거주하는데 그 기간에는 영상회의로 Y국 법인의 업무에 참여한다.

○ Y국 국적자 병은 X국과 Y국에 각각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며 1년 중 X국에 1/4, Y국에 3/4을 체류한다. 병은 Y국에 체류할 때는 주로 휴식을 취하지만 X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X국의 공장을 운영하는 등, X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 Y국 국적자 정은 Z국에만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나, 거주는 X국과 Y국에서 정확히 50 %씩 한다. 정은 X국과 Y국 중 어느 쪽에도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 ① 갑과 병은 거주국이 같다고 결정된다.
- ② 갑 ~ 정 중 거주국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 ③ 갑 ~ 정 중 국적이 Z국인 사람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다.
- ④ 갑 ~ 정 중 Z국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는 사람의 거주국은 X국으로 결정된다.
- ⑤ 갑 ~ 정 중, X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는 같다.

-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⑤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두 번째 문단의 <기준>을 고려하여 갑 ~ 정의 거주국을 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갑>

- 어느 나라에도 영구적인 주소가 없으므로 첫째 기준과 둘째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
- 어느 나라에도 영구적인 주소가 없으므로 셋째 기준의 전건을 충족하여 1년에 약 9개월을 거주하는 Y국의 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갑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다.

<을>

- 을은 유일하게 X국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므로 첫째 기준을 적용하여 X국의 거주자로 결정된다.

<병>

- 병은 X국과 Y국 모두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므로 첫째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
- 병은 X국과 Y국 모두에 영구적인 주소가 있으며, X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둘째 기준을 적용하여 X국 거주자로 결정된다.

<정>

- 정은 X국과 Y국에서만 소득을 얻으며, X국과 Y국이 아닌 Z국에만 영구적인 주소가 있으므로 첫째 기준과 둘째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
- 정은 소득을 얻는 X국과 Y국 중 어느 쪽에도 영구적인 주소가 없으나 X국과 Y국에서 각각 1년의 50%를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으므로 셋째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
- 정은 소득을 얻는 X국과 Y국 중 어느 쪽에도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므로 국적에 따라 Y국 거주자로 결정된다.

- (×) : 갑의 거주국은 Y국, 병의 거주국은 X국으로 결정된다.
- (×) : 갑 ~ 정 모두 거주국이 결정된다.
- (×) : 갑 ~ 정 중 국적이 Z국인 을은 X국의 거주자로 결정된다.
- (×) : 갑 ~ 정 중 Z국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는 정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다.
- (○) : 갑 ~ 정 중 X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은 을과 병이며,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은 갑과 정이다. 따라서 갑 ~ 정 중, X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는 같다.

문 9. 다음 ㉠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년 5급 공채 나책형 18번]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 증언했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는가?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해서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증언이 진기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증언의 믿음직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흄은 증언이 단순히 진기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기적 사건에 관한 것인 경우를 다룬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누군가 증언했다고 생각해 보자. 흄의 이론에 따르면, 그 증언이 거짓일 확률과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비교해서, 후자가 더 낮다면 우리는 기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전자가 더 낮다면 우리는 그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한편 프라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 증언이 참일 확률이 기적이 일어날 확률보다 훨씬 높으면, 우리는 그 증언으로부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가람은 ㉠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0.01 %지만, 가람은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의 증언이 거짓일 확률은 0.1 %다. 의심 많은 나래는 가람보다 더 믿을 만한 증인이다. 나래도 그런 기적을 증언했는데 그의 증언이 거짓일 확률은 0.001 %다.

- ① 흄의 이론에 따르면, 나래가 ㉠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 ② 흄의 이론에 따르면, ㉠에 대한 가람의 증언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 ③ 프라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가람이 ㉠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 ④ 흄의 이론에 따르면 프라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가람의 증언으로부터 ㉠이 실제로 일어났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⑤ 흄의 이론에 따르면 프라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나래의 증언으로부터 ㉠이 실제로 일어났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 1.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
- 2. 해당 문제에 적용된 출제장치는 무엇인가?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은 무엇인가?

정답 : 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 0.01%  
가람의 증언이 거짓일 확률 : 0.1%  
가람의 증언이 참일 확률 : 99.9%  
나래의 증언이 거짓일 확률 : 0.001%  
나래의 증언이 참일 확률 99.999%

<흠>

- 1.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가람의 증언이 거짓일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흠의 이론에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가람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2.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나래의 증언이 거짓일 확률이 더 낮다. 따라서 흠의 이론에 따르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나래의 증언이 거짓이 아닌 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프라이스>

- 1.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가람의 증언이 참일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프라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가람의 증언이 거짓이 아닌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 2.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나래의 증언이 참일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프라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나래의 증언이 거짓이 아닌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 ① (×) : 흠의 이론에 따르면, 나래의 증언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 ② (×) : 흠의 이론에 따르면 가람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③ (×) : 프라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가람의 증언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 ④ (×) : 흠의 이론에 따르면 가람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프라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가람의 증언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야 하므로 ㉠이 실제로 일어났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⑤ (○) : 흠의 이론과 프라이스의 이론 각각에 따르면 나래의 증언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나래의 증언으로부터 ㉠이 실제로 일어났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